

사회

쓰쓰가무시·렙토스피라·신증후군출혈열

추석 전후 '발열성 질환' 주의보

광주·전남을 20명 ... 年 800명 꼴 발병

농촌 주민에 집중·도시민 환자도 증가세

최근 3년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2천400여명이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쓰쓰가무시증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800명 꼴이다. 주로 농촌 지역 주민에게서 많이 발병하고 있지만 광주를 비롯한 도시민 환자도 적지 않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출혈열 환자도 잇따라 질병관리본부가 발열성 전염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쓰쓰가무시증 환자는 모두 683명(광주 175명, 전남 50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 838명(광주 186명, 전남 652명), 2006년 908명(광주 251명, 전남 657명) 등 3년간 모두 2천429명이 감염됐다. 환자 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한 해 평균 800여명이 감염되고 있다.

올들어 현재까지는 13명의 환자가 보고됐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6천 532명, 최근 3년 동안 2만233명의 환자가 보고됐다.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털 진드기의 유행에 물려 감염되는 쓰쓰가무시증은 전남과 전북 등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여성에게 많이 발

생하고 있다. 벌초와 소풍, 등산, 밭잡기 등 야외활동이 빈번해지는, 추석을 전후한 9~11월에 집중되고 있다.

쓰쓰가무시증 뿐만 아니라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출혈열도 지속적인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성출혈열로 알려진 신증후군출혈열은 최근 3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34명, 98명의 환자가 보고됐으며, 렙토스피라증도 각각 9명, 82명이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전국의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출혈열 환자는 각각 427명, 1천247명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24일 현재 광주·전남지역의 렙토스피라 환자는 6명, 신증후군출혈열 환자는 1명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최근 야외활동 증가로 도시지역 주민들의 발병이 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질병을 옮기는 해충들이 오래 생존하면서 감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야외에서는 가급적 풀밭에 눕지 말고, 야외활동 뒤 두통이나 고열,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리면 곧바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동증가로 도시지역 주민들의 발병이 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질병을 옮기는 해충들이 오래 생존하면서 감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야외에서 가급적 풀밭에 눕지 말고, 야외활동 뒤 두통이나 고열,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리면 곧바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호기자 khh@kwangju.co.kr



5·18 구묘역 벌초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청년간부회의' 회원 30여명은 24일 추석을 앞두고 5·18 구묘역에서 벌초와 묘비단기,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산림청 공무원 사유림 정보 주고 '뒷돈'

광주서부경찰, 부동산 업자 등 26명 검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산림청이 추진중인 국유림 확대 사업에 구멍이 뚫렸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사유림(私有林)에 대한 정보를 흘려준 산림청 공무원과 이 정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 부동산중개업자 등 일당 2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광주서부경찰은 24일 사유림 매각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서부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 A(49)씨 등 공무원 3명과 브로커 3명 등 6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로부터 매입 정보를 들고 사유림을 사들인 투자자 B모(46)씨와 공무원 2명 등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유림관리소에 편성된 사유림 매입비 304억원(면적 1만210ha) 중 35%인 3천521ha(시가 79억원 상당)를 헐값에 매입, 28억 등 6명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또 순천국유림관리소 신청사 건립 소식을 듣고 지주들로부터 부지 9천292㎡를 7억원에 매입한 뒤 7개월 후 11억1천만원을 받고 서부산림청에 되팔아 4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유림 매입·매각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브로커 C(43)씨 등으로부터 정보를 전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공무원·브로커·부동산중개업자·감정평가사·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국유림관리소가 사유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소유주로부터 해당 부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감정가를 부풀려 서부산림청에 비싼 가격에 되파는 수법으로 한 명당 적게는 3천만원, 많게는 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 기자 glee@kwangju.co.kr

■ 중선원 서해 난동...박경조 경위 사망 1년

특공대·함정 등 '철통 방어' 불법조업 선박 크게 줄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24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고(故) 박경조 경위의 사망 1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거행했다. 박 경위는 지난해 9월 25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에 검문하다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둔기를 맞고 바다에 추락해 숨졌다.

이날 추모식에는 김상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사고 당사 동료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의 희생을 의의로 되새기는 한편,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해경은 박 경위 사망을 계기로 해상 감시활동 면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거듭했다. 해경은 지난해 10월 특수기동대를 창설하고 목포해경 등에 배치된 1천~3천t급 함정에 승선시켜 중국어선 단속 작전에 투입했다.

4~5m의 높은 파도 속에서 일반 경찰관이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중국어선을 나포하기란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해경은 또 중국 선원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자총격총'을 비롯, '삼광폭음탄', '방검부력조끼' '헬멧형 통신기' 등 최첨단 장비로 무장했으며, 헬기를 탑재한 3천t급 경비함정을 배치해 해·공 입체적 감시작전과 기동순찰을 펼치고 있다.

해경의 이같은 '철통방어' 태세로 인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눈에 띄게 줄었다. 올 들어 9월까지 우리측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66척으로, 2008년(432척)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 경위의 희생이 고질적인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줄이는 밑거름이 된 것이다. /목포=대성수기자 dss@

"주유소 설치 불허는 재산권 침해" 이마트, 순천시 상대 첫 행정소송

대형 마트 내 주유소 개설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업체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이마트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첫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마트는 최근 "이마트 순천점 주차장 내 주유소 설치를 불허한 순천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건촉허가 신청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마트는 소장에서 "순천시가 주차장 내 주유소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불허한 근거로 삼은 관련 조례는 주차장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교통혼잡과 중소상인 보호라는 명분도 헌법상 재산권을 근거없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현재 경기 용인과 경남 통영, 경북 포항, 구미 등 4곳에 주유소를 운영 중이다. 이마트가 행정심판을 기각으로 행정제판을 청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마트는 순천시 덕암동에 주

유소를 신축키로 하고 지난 2월 순천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교통혼잡과 지역경제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병역비리 수사 확대

10개 지방병무청 압수수색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24일 병역 연기자의 거래은행과 지방병무청 1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병원을 압수수색하기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병무 브로커 윤모(31·구속)씨와 접촉해 병역을 감면·면제받은 사람들을 진단한 병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전남 전체 조사 대상자 203명의 병역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병무청 1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7912) 김장두



순천 모 교회 앞 30대 男 분신

24일 오전 9시께 순천시 덕일동 모 교회 앞에서 A(35)씨가 기름을 끼얹고 분신을 기도했다. A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화끈에 분신했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철사에 갇 붙어 현금함 '돈 낚시'

○기 철사에 풍선껌을 붙여 사찰의 불전함이나 교회의 현금함에서 '돈 낚시'를 해온 목불 '강태공(?)'이 경찰서행.

○목포경찰은 24일 철사와 껌을 이용해 사찰과 교회의 현금 만을 끌러 털어낸 강모(32)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3월 10일 목포시 죽교동 모 사찰 대웅전에서 껌을 붙인 철사를 불전함에 넣어 15만원을 낚아 꺼내는 등 지난달 중순까지 사찰, 교회 등을 돌며 46차례에 걸쳐 330만원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돈 낚시'로 생활비를 마련해 PC방을 전전해 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껌에 돈을 붙이는 수법'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진술. /목포=대성수기자 dss@

2010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A large advertisement for Kwangshin University featuring a rainbow, a person, and detailed text about admissions for various departments and graduate programs.